

## 단일민족국가 한국과 다민족국가 카자흐스탄

메시트바이 메루예르트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4 학년

지도교수:김영경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Мононацион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Южная Корея 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Казахстан*

**Автор:** *Мешитбай М.М., Казах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имени Абылай хана (4 курс), Алматы, Казахстана*

**Резюме:**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Казахстан и моноэтническое (мононациональное, однонацион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Южная Корея. Моноэтниче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или однонациональное) – государств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ого могут проживать разные народы, однако основную массу жителей составля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дного этноса.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е (полиэтническое) – государство, в границах которого проживают несколько этнических групп (народов). Данное понятие антонимично понятию «мононацион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За годы развития и становления Казахстан прошел долгий путь. Были приобретения и потери, яркие победы и незначительные поражения, но Казахстан выстоял, и к 20-летию независимости пришел сильным, успешным, процветающим государством. Благодаря мудрой политике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Казахстан стал примером для многих стран мира. Мы с гордостью говорим, что в нашем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м, многоязычном и много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м государстве за эти годы удалось не только избежать межэтнических столкновений, но и жить в мире и согласии. 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не Казахстан проживают более 130 наций и народностей. Для сплочения этих народ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траны проводятся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одно из которых –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Казахстана.*

*Славная история Кореи как единого независим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была прервана японской аннексией страны в 1910 г. Спустя три десятилетия, когда в конц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Япония была разгромлена, ее советские и американские победители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разделе Кореи, который был произведен вдоль 38-й параллели. Люди, оказавшиеся по южную сторону этой линии, стали жить при капитализме и называться южнокорейцами, живущими в условиях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режима. Сегодня Южная Корея – процветающ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страна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жизни, экономика которой находится на четвертом месте в Азии. Южане постепенно научились использовать собственную инициативу,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и умения для создания новых бизнесов, часть которых сегодня входит в число мировых лидеров.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ке, на конец 2014 года, население Южной Кореи составляло 50 348 758 человек. За 2014 год население Южной Кореи увеличилось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на 115 035 человек.*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ое меньшинство, мононацион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Южная Корея, диаспор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ультура*

**주제어:** *다민족국가, 카자흐스탄, 단일민족국가, 한국, 디아스포라, 소수 민족, 독립, 문화*

## 1. 단일민족에 대한 이해

한국은 단일민족국가이다 보니 영어에서의 "ethnic group"과 "nation"의 개념을 비슷하게 보고 있으나, 이 둘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조선족을 이르는 "Korean ethnic group in China"나 한국의 민족주의를 설명할 때의 "Korean ethnic nationalism"을 볼 때, 대체적으로 한국어의 민족이라는 개념은 "ethnic group"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만 이때는 "nation"이라는 단어의 번역이 약간 애매해진다. 최근에는 nationalism에 대한 번역을 포기하고 그냥 내셔널리즘이란 영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

민족은 반드시 혈통적 기원이 단일한 집단만을 이르지 않는다. 혈통은 민족의 기반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혈통만이 아니라 종교 (유대인의 경우), 언어(아랍인의 경우), 문화, 동일한 역사인식 등에 기반할 수 있다. 즉, 인종적으로 다양한 기원을 지닌 집단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단일성을 지닌 "민족"이라 분류될 수 있다.

미국처럼 같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정체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민족국가를 단일민족국가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회 구성원들부터 "ethnic group"별로 여러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각자의 언어나 문화 풍습 등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에서 영어를 제 1 언어로 사용하는 비율은 80% 정도로 결코 높은 편이 아니다. 50년 후에는 스페인어가

제 1 언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심지어 이민자 사회에서는 여성 할례, 명예살인 같은 악습도 존재한다. 한인 커뮤니티도 폐쇄성이 강하다. 같은 러시아 이민자라도 민족별로 서로 으르렁거리기도 한다.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의 차이가 약간 애매한 나라도 존재하지만, 미국의 경우 둘이 엄격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일민족"이라는 단어는 매우 애매하다고 할 수 있다. 민족이란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의 "단일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족 및 기타 소수민족을 아우르는 상위개념으로서의 민족인 중화민족과 같이, 여러 민족의 상위 집합체로서의 민족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단일민족이 아닌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한국인의 혈통적 다양성을 근거로 들어 한국인 단일민족 허구론을 주장하는 것도 완전히 적절치는 못하다. 민족은 어디까지나 구성원들이 민족적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즉 베네딕트 앤더슨의 표현처럼 어떠한 집단이 자신들을 하나의 민족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계기로 탄생하기 때문이다. 근대 한반도에서는 한민족 외의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한, 혹은 "상상"한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 2. 한국의 단일민족국가 형성 배경

한국은 보통 단일민족국가를 자처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이 여러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국가와 달리 한국과 북한은 한민족이 전체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일민족국가이다. 민족이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지닌 집단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민족 집단도 순수 혈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변의 이질적 혈통을 흡수하고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의 민족 집단으로 융화된다. 한민족 주변의 한족, 몽골인, 만주인, 일본인, 기타 남방 계통 등의 여러 유전자가 더해져 오늘날 동일한 언어와 문화, 공동체 의식을 지닌 한민족으로 융화되었다. 곧 한민족 집단이 언제나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여기에 여러 이질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흡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민족의 뿌리는 언어로 보면 몽골어, 만주어, 터키어 등 알타이어 계통의 먼 공동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생각되며, 문헌상으로는 한(韓)이나 예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중국 북방에서 만주와 한반도에 살던 선주민을 몰아내면서 동쪽으로 이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옛 문헌에서는 당시 랴오닝 지방과 한반도에 살던 세력을 숙신, 조선, 한, 예, 맥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철기시대에 들어서고 연나라 이후 중국 지역의 세력판도가 바뀌면서 고조선의 유민들이 이주해 오거나 전국시대와 진, 한 교체기의 사회적 혼란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도 하였다. 공동의 언어와 문화, 민족의식이 언제, 어떠한 경로로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만큼 한민족의 형성 시기에 관해서도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고 있다.

크게는 근대 이전에 형성되었다는 전근대형성설과 근대 민족국가의 수립과 더불어 형성되었다는 근대형성설로 나뉘는데, 전근대형성설은 다시 신라의 삼국통일을 계기로 형성되었다는 학설, 발해 유민까지 통합한 고려 건국을 계기로 형성되었다는 학설, 몽골 침략을 겪으면서 높아진 민족의식을 배경으로 조선의 건국을 계기로 형성되었다는 학설 등으로 나뉜다. 한민족의 민족의식의 형성과 언어의 통합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3. 단일민족국가 한국의 장점과 단점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물론 이미 한민족에 다른 민족의 피가 많이 섞여서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단일민족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2002년 월드컵 때 광장, 공원, 경기장 등에서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붉은 악마의 물결은 전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러한 애국심의 도가니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뭉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은 한국전쟁과 90년대 후반의 IMF 위기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면 한국인들은 하나가 된다. 한국전쟁 이후 놀라운 속도로 나라를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국가들보다 몇 배는 빨리 경제 강대국으로 도약했다. 외환위기는 국내 경제를 초토화시켰으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박탈했지만 한국인들은 또 다시 뭉쳐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

한국의 단일성은 또한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을 통해 한국인들은 뭉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일본 강점기를 통해 한국인들은 언어, 문화,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한국의 단일성은 외부 문화가 함부로 스며들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이것은 단일민족의 단점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그들과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외국인들은 무시를 당하고 외국 전통은 천대를 받으며, 전통성에 대한 진보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세계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있다.

단일성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이지만 동시에 세계화 시대를 맞이한 한국이 더욱 발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민족의 뿌리를 알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자부심과 고집은 분명히 다르다. 단일민족으로서의 한국이 자신의 문화를 사랑할 줄 알고 동시에 다른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4. 다민족국가 카자흐스탄의 형성 배경

15~16 세기에 씨족의 연합을 통해 카자흐 민족의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된 후, 19 세기 제정 러시아가 영토를 넓히는 대대적인 합병과정 중에 많은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특히 1906 년 트랜스-아랄 철도가 개통되면서 더욱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주하였는데, 1920 년경 일어난 원주민과 정착민들 사이의 대규모 충돌로 인해 양쪽에 많은 희생이 있었다. 절반쯤 남은 카자흐인들 중 일부가 몽골이나 중국 등지로 도피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민족비율을 형성하였다. 카자흐스탄의 소수민족들은 대부분 19 세기 제정 러시아의 침략으로 자국을 떠나 흩어진 이들이거나, 20 세기 제 2 차 세계대전 중 소련에 의해 강제이주된 이들이다.

카자흐스탄의 2014 년 인구조사자료에서 카자흐인이 약 65.52%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러시아인, 우즈베크인의 순서였다. 독립 당시 카자흐인이 인구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심지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 슬라브인들보다도 적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현재는 카자흐인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민족의식과 국가정체성을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려인은 러시아어로 남자는 "кореец(카레이츠)", 여자는 "корейка(카리얀카)"이다. 유학이나 직장문제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동일하게 불린다. 또한 "당신은 카자흐인입니까?"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요."라고 대답하면서, "저는 위구르인입니다."와 같이 민족의 이름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정체성과 민족의식의 괴리감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스타나로의 수도 이전, 공용어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5. 카자흐화와 카자흐스탄화의 병행

##### 5.1. 민족문제의 원인

1990 년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카자흐스탄을 건국할 당시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민족문제였다. 130 개 민족이 뒤섞여 살던 소련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다양한 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하나는 카자흐인의 비율이 인구의 절반 이하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카자흐 유목민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광활한 초원지대를 경작하기 위해 슬라브계 민족들의 대규모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카자흐스탄이 1930~40 년대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의 종착지였다는 사실이다. 1937 년 극동 지역에 살던 고려인의 강제이주를

비롯해 캅카스, 크림, 볼가 지역에서 수만 명의 다양한 민족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였다. 카자흐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학적 불균형은 독립 이후 현재까지 서서히 개선되어 왔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던 많은 소수민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였으며, 정부가 "오랄만"(oralman), 즉 해외 카자흐인의 귀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 5.2. 카자흐화와 카자흐스탄화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은 소련 시기 70년 동안 국가를 지탱했던 소비에트 이념과 정체성을 대신할 새로운 국가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 역사적으로 독립국가를 형성한 적이 없던 카자흐스탄이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필요도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정치가들은 다민족, 다종교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카자흐인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정책을 고안해 냈다. 민족정체성이 희박한 카자흐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카자흐화"(Kazakhization)와 다민족국가의 국민정체성을 확립하는 "카자흐스탄화"(Kazakhstanization)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 5.3. 카자흐화 정책

카자흐화 정책은 의도한 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독립 당시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던 카자흐인의 수가 계속 늘어서 정치, 경제, 행정 분야에서 카자흐인들의 진출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취약했던 카자흐인들의 민족정체성, 언어정체성이 강화되었다. 1960년대 소비에트 정권이 추진했던 "토착화"(korenizatsiya) 정책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는 카자흐인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로 우선 채용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카자흐인 우대정책에 대해 비카자흐계 민족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다수를 차지하던 러시아인들은 1990년대 초기에 민족의 자치를 요구하는 정치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인들의 상당수가 러시아로 귀환했고, 정부의 러시아계 엘리트에 대한 회유 정책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러시아인들의 민족주의 운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인구가 많지 않은 대다수 비카자흐계 민족들은 카자흐인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 정부는 다양성의 수용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민족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카자흐스탄 민족(국민)의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카자흐 민족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이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카자흐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이 갈등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소수민족의 문화적 동원"(cultural mobilization)과 "카자흐스탄 민족회의"(APK, the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의 설립이다.

## 6. 결론

다민족국가 카자흐스탄은 열린 마음으로 이질적인 문화를 수용하고 있다. 이미 전세계가 하나의 마을과 같이 생각되는 시대에 한 나라 안에서 민족 간의 소통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게 된 것은 카자흐스탄의 큰 장점이다. 다름으로 인한 마찰과 갈등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말처럼 "다른 민족과 인종 간의 관계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고, 어려운 시기도 "국민의 화합과 형제애와 우정으로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은 다민족국가인 카자흐스탄과 대척점에서 있다. 그러나 한국도 차츰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민족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다민족국가로 변모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다름을 수용하고 모두의 공익을 도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http://www.kofice.or.kr/c30\\_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1005](http://www.kofice.or.kr/c30_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1005)
2. <https://mirror.enha.kr/wiki/%EC%B9%B4%EC%9E%90%ED%9D%90%EC%8A%A4%ED%83%84>
3. [https://ru.wikipedia.org/wiki/%D0%9D%D0%B0%D1%81%D0%B5%D0%BB%D0%B5%D0%BD%D0%B8%D0%B5\\_%D0%9A%D0%B0%D0%B7%D0%B0%D1%85%D1%81%D1%82%D0%B0%D0%BD%D0%B0](https://ru.wikipedia.org/wiki/%D0%9D%D0%B0%D1%81%D0%B5%D0%BB%D0%B5%D0%BD%D0%B8%D0%B5_%D0%9A%D0%B0%D0%B7%D0%B0%D1%85%D1%81%D1%82%D0%B0%D0%BD%D0%B0)
4.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B%AF%BC%EC%A1%B1>
5. <http://www.hongik.ac.kr/~kayakim/openlec/klminjok.htm>